주간 중국 창업

제 84 호 (2018. 6. 20)

발행처: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전화: +86-136-8309-8080
센터장: 고영화 메일: yhk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마윈(马云)이 더우인(抖音)을 인수해야 하는 이유?** (칸차이왕, 2018.6.12)
- ▶ **변신의 길을 시작한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기업가치가 1,500억 불로 평가되어** (36Kr, 2018.6.12)
- ▶ **3km내의 젊은 층을 공략, RT마트와 알리바바가 1시간 배달 서비스를 공동 런칭** (신차이넷, 2018.6.12)
- ▶ **中 정부, 3,000억 위안의 기금 조성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지원** (매일경제신문, 2018.6.13)
- ▶ **2018년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100强 리스트** (소후하이테크, 2018.6.13)
- ▶ **IT오렌지 주보: 6/11~6/17까지 있었던 111개 국내 투자/합병 건** (IT오렌지, 2018.6.19)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 ▶ **AI 특집 (2018.6.11 ~ 2018.6.13) – KIC중국 제공**
- ▶ **Robot & AI (2018.6.19) – SV Investment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8.6.15)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33) (2018.6.17) – 윤형건 교수 제공**

KIC중국 NEWS

-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직원 모집**(2018.6.22)
- ▶ **KIC중국, 제2회 창기미래 재중국한국유학생 제4차산업혁명 창업대회 개최**(2018.6.16)
- ▶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v2.0** (2018.7.3)

주간 중국 창업 뉴스

1. 마윈(马云)이 더우인(抖音)을 인수해야 하는 이유

(출처: 칸차이왕(砍柴网), 2018.6.12)

가. 알리는 더우인이 필요하다.

알리와 텐센트는 시가가 막상막하인 두 거물급 기업이다. 알리계열의 주요 제품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은 고객의 재화, 소비와 직접 접촉하기에 가치성이 보다 높다. 텐센트 계열의 제품 위챗, QQ는 사용자의 시간을 직접 지배하고 있고, 소셜 플랫폼의 응용환경 확장능력이 뛰어나다. 알리 계열의 사업들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산의 뱀(常山之蛇)처럼 상호보완적인 사업들이다.

알리 계열의 제품의 경우 대다수 채팅 기능이 아닌 기타 특정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예로 알리페이는 채팅기능을 심화시킨 제품이 없다. 타오바오에 빠져있는 것은 쇼핑에 열중하는 이들뿐이고, 알리 클라우드, 차이냐오(菜鸟, CSN프로젝트)는 '하부층 to B' 제품이다. 텐센트와의 대결에서 텐센트 계열의 트래픽(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시간)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하는 것은 알리계에게는 어려운 숙제이다.

컨텐츠로 트래픽 확보에 있어서, 알리는 Youku.Tudou, UC, 샤미(xiami), 내지 웨이보, 머머(MoMo), 막 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 픽처등이 있지만 스톡형 트래픽 분야에서는 텐센트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95후'95后'가 활약하는 '증가량'트래픽 경쟁에서 알리 계열은 결코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현재 텐센트와 경쟁 중인 더우인은 위챗, QQ의 공유경로가 이미 차단되어 있다. 콘텐츠 트래픽에 주력하는 텐센트와 터우탸오(头条)는 이미 거의 물과 불과 같은 사이가 되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더우인의 트래픽은 5월 말에 이르러 이미 1.5억에 이르렀고, 알고리즘으로 프리셋한 컨텐츠가 끊임없이 트래픽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소셜에서 사용자 이용시간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일단 더우인이 알리계열에 편입되기만 하면 알리계열의 컨텐츠 트래픽 분야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더우인이 알리 계열 전자상거래 사업의 또다른 트래픽 게이트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타오바오 생방송 광고(淘宝直播营销)' 대비, 더우인의 동영상 컨텐츠는 보다 가볍고, 오락성이 뛰어나며, 인포메이션 트래픽 광고를 임베디드 시키는 체험이 좋다.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하고, 타오바오, Tmall과

연결시키면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키워드 검색과 홈에서 천인천면(千人千面) 트래픽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면할 수 있다.

높은 트래픽, 응용환경별 임베디드, 원활한 트래픽 유도, 어느 한가지라도 알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충분하다.

나. 장이밍(张一鸣)의 수락여부는?

작년에 '진르터우탸오를 격살하라!'는 글이 발표된 바 있었다.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 기업이 거금을 투자하여 시작한 인포메이션 사업이 터우탸오의 전략에 넘어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터우탸오의 핵심사업은 동영상 플랫폼이고, 뉴스는 결코 본업이 아니다; 더우인은 터우탸오가 콰이서우(快手)회사가 1급 도시에서 확보하는 유저수의 상승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큐베이팅한 것인데, 뜻밖에도 유저 확산률이 기타 제품을 초과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더우인은 이미 1, 2, 3급 도시의 젊은 세대에 확산되었고, 비즈니스 가치는 콰이서우를 훨씬 초과했다.

2018년, 진르터우탸오는 악재가 거듭되었다. 경쟁사들의 다양한 태클을 걸어오고, 정부의 감독관리 측의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진르터우탸오에서 일반인 트래픽이 많이 생산되는 사회, 명언, 재밌는 그림, 포샵, 미녀채널등이 모두 단속을 당했고, 정치성향이 있는 코미디 채널 역시 단속당했다

진르터우탸오는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세뇌능력이 뛰어난 무기'라 정부측 홍보기관의 주목을 쉽게 받는다; 다른 한편, 장이밍 사장은 줄서기와 세력가에게 기대려는 욕심이 없어서, 관련 기관의 지지를 얻을 일이 전혀 없다.

더우인이 웨이보와 위챗에 금지된 것은 이익 창출의 종결을 뜻하고, 앞으로 유휴 유저를 정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내부적으로 트래픽 소진 체제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트래픽 보급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알리는 새로운 '트래픽 게이트'가 필요하고, 더우인은 현금화 채널이 필요하다. 알리와 협력하게 될 경우, 더우인은 단병작전을 종결짓고, 기댈 언덕이 얻을 수 있으며, '협공'를 당하던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 시각으로 보면, 더우인의 트래픽은 크지만 지금까지 생방송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 콰이서우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의 80%가 생방송에서 온 것을 감안하면, 더우인은 정책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생방송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지며, 더우인의 KPI는 불가피하게 광고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장이밍 사장은 더우인을 매각하더라도 수중에 시과(西瓜)동영상, 훠산(火山)미니동영상 등 기타 동영상 트랙의 제품들이 있다. 더우인 기존의 유저 데이터는 터우탸오 시리즈에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후 새로운 알고리즘의 동영상 제품을 다시 인큐베이팅 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장이밍의 수락여부는 결국 마윈에게 달렸다. 마윈은 거절할 수 없는 가격과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다. 알리+터우탸오는 무선 인터넷 사업분야의 AT 경쟁 세력균형을 안정시킬 수 있다.

위챗이 공식계정 탈중앙화 생태계를 조성한 후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각축은 '후반전'에 들어섰다. 거의 모든 기업, 매체, Wemedia가 위챗에서 겜블링을 하고 있다. 위챗은 경쟁상대를 제치고 솔선하여 완전한 트래픽 순환회로를 조성한 반면 기타 제품의 경우 고객 확보 난이도와 원가가 증가되었으며, 창업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국내 무선 인터넷의 OS는 '위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챗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위챗을 제외하고, 텐센트는 수천 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는 국내 인터넷 시장의 사실상 독점자이다.

텐센트가 현명한 점은 1등으로 될 수 없는 분야, 소셜 미디어의 트래픽 분야를 지분 투자 파트너에게 오픈해 주고, 인수합병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성장실적을 반영시킨 점이다. 소셜 링크를 제외하고, 사용자 충성도를 키울수 있는 '컨텐츠'블록, 이를테면 공식계정, 웹 동영상, 게임 IP드라마, 쇼트 클립, 영화, 문학, 만화와 애니메이션, 음악 등은 텐센트 트래픽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알리의 전자상거래+투자와 텐센트 게임+투자 수익모델의 안정세는 지금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알리는 온라인 트래픽의 정점을 찍은 후 오프라인 트래픽에 시선을 돌리고 '뉴 리테일'을 시작했다.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투입을 계속하여 늘리고 있다. 산하에 징둥, 메이퇀(美团), 핀둬둬(拼多多), 모구제(蘑菇街), 워이핀후이(VIPshop)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더욱이 '핀둬둬'가 궐기하고, 더욱이 애플릿은 중소기업의 고객유치 발통점을 조준한 사업모델이다.

알리 계열이 기존의 국면을 돌려세우려면 컨텐츠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 현재, 알리 계열이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 진행하는 UC, 유쿠 동영상, 샤미 음악, 알리게임, 라이펑(来疯)생방송, Pea Pod, 알리문학, 알리바바 픽처 등 사업들은 비록 구전한 구도를 갖추었지만 아직까지는 '킬러급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고, 국민급 히트상품이 많지 못하다.

전체 인터넷산업을 살펴보면, 바이두, 네트이즈는 파고들 틈이 없는 정예부대이고, 오직 아직 날개가 굳지 못한 터우탸오만이 알리계열에게 가능성이 있는 후원군으로 될 수 있다. 터오탸오의 알고리즘으로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은 텐센트 게놈에서 부족한 부분이고, 이는 알리계열이 텐센트를 초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힘이기도 하다.

맺음말

'더우인과 텐센트의 대결'후,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는 알리계열+터우탸오가 텐센트에 대결하는 국면이 나타났다.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절대적인 지배자는 이익을 우선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터우탸오가 알리계열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더우인이 알리에 인수되지 않더라도, 텐센트는 이미 '알리계열'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했다. 더우인과 텐센트의 대결은 큰 의미가 있다. 거물기업간의 안정세와 밸런싱만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 변신의 길을 시작한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기업가치가 1,500 억 불로 평가되어

(출처: 36kr(36氪), 2018.6.12)

민간기업의 혁신은 최근의 뜨거운 화제였다. 민간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학기술부가 드디여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단순한 결제도구에서 시작하여, 재테크, 신용대출, 보험, 신용 등을 포함한 복잡한 생태권을 조성한 후, 다시 협력의 폭을 빈번히 넓히는 등 앤트파이낸셜의 역할과 바운더리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6 월상순, 140 억 위안의 융자를 확보한 앤트파이낸셜, 기업가치가 1,500 억 달러까지 상승되었다. 투자기관은 하이테크기업 기준으로 평가지수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최근에 발표된 국내 파이낸셜 홀딩스 그룹 감독관리 시범 리스트에 앤트파이낸셜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정부측 감독관리부서는 앤트파이낸셜을 여전히 금융회사로 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시범시장을 운영

《파이낸셜 타임즈》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저수가 6 억 2,200 만에 달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산규모는 2.2 조위안에 이르렀으며, 그중 Yu'ebao 가 관리하는 자산은 1.5 조 위안에 달한다. 전체 핀테크 회사중 앤트파이낸셜은 라이센서를 가장 잘 갖춘 기업이고, 라이센서별로 대응한 금융 서비스가 있다.

방대한 규모의 C 클라이언트 사용자수, 빠짐없이 갖추어진 라이센서는 앤트파이낸셜을 금융그룹으로 보게 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앤트파이낸셜 스스로는 다른 해석을 갖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의 천량(陈亮) 부사장은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금융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서를 받아야 하지만 애츠 파이낸셜의 성장계획에서 라이센서를 받는 것은 만리길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과 서비스능력을 누적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신뢰를 받은 후 협력의 방식으로 자사의 솔루션을 송출하면서 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고 밝혔다

2004 년, 앤트파이낸셜이 그때까지는 알리페이에 그쳐 있었고 핀테크 혹은 인터넷 금융이란 개념이 없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감독관리 부서를 물론하고 모두 알리페이를 생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알리페이는 런칭초기 유니온페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반 은행과 연결하려고 했으나 유니온페이측의 수락을 얻어내지 못하고 결국 은행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알리페이가 타오보 시스템에서 벗어나 외부응용환경에 접목된 것은 2008 년에 있은 일이다.

알리의 소액대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7 년부터 알리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건설은행과 협력을 시도했으나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만 지속되었다. 2010 년과 2011 년 항저우와 충칭에서 소액대출회사를 등록하고, 대출업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Yu'ebao 의 탄생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톈훙(天弘)펀드는 결코 Yu'ebao 최초의 선택이 아니였다. 당시는 대형 펀드회사는 협력을 꺼리고, 시장 랭킹이 뒷자리에 처져있는 톈훙만이 협력의지를 갖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의 발전과정을 두루 살펴보면, 알리 소액대출, Yu'ebao, 보험 등 제품들은 런칭초기에는 직영방식이 결코 최우선 선택사항이 아니였다. 하지만 금융처럼 리스크 부담을 중요시하는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은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없고, 협력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플레이어게 수용되기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앤트파이낸셜은 어쩔수 없이 직영방식을 채택했다. 다행히 거대한 사용자층과 탄탄한 소비환경으로 말미암아 앤트파이낸셜이 '시범시장'으로 간주했던 사업들이 '돈나무'로 되어버렸다.

모델을 성숙시킨 후 시장에 출시

제반 업무가 가동되자 앤트파이낸셜은 2B 사업을 착수했다. 이미 검증된 기존의 '시범시장'을 일일히 개방하면서 기술 송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 년, 설립한지 1 년 미만인 앤트파이낸셜은 '인터넷 스러스터'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 년간 자사의 인터넷 기술력을 1000 개소 이상 금융기관에 오픈할 의지를 밝혔다.

앤트파이낸셜의 전략이 오픈한 것은 '일괄적 계획'이다. 하부층기술, 리스크관리기술등을 포함한 '일괄적 기술'이고, 구체 업무중의 환경, 사용자, 자산 등을 포함한다.

앤트파이낸셜 자체 업무 레이어에서 살펴보면, '모델을 성숙시킨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논리가 깔려있다. 즉 '시범시장'이 시장검증을 통과하면 오픈시킨다. 인터넷 뱅킹 분야 알리 소액대출, 화베이(花呗), 제베이(借呗), Yu'ebao 등 검증된 사업들을 모두 오픈시키고, 은행, 펀드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했다.

오픈 수량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알리 소액대출은 8 년간 운영한 후에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타은행에 오픈시켜 주었다. Yu'ebao 는 운영 5 년후에야 톈훙펀드를 제외한 기타 펀드회사에게 오픈시켜 주었다. 화베이, 제베이는 3 년동안 운영한 후에야 협력 파트너에게 오픈시켜 주었다.

5 월에만 해도 앤트파이낸셜은 화샤은행(HXB), 광다은행(CEB)과 푸파은행(SPDB)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에 앞서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난징은행, 장쑤은행등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수익구조 조정

중국정부기관이 앤트파이낸셜을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원인은 기업의 기존 소득구조중에서 금융사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앤트파이낸셜의 업무중점의 변화는 수익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의 입수한 앤트파이낸셜의 융자 관련 서류를 보면, 향후 5 년간, 기술 서비스가 앤트파이낸셜의 65%를 차지할 것이다. 2017 년 해당 비례는 이미 34%에 달했다. 기술 서비스는 은행과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리스크 관리와 사기방지등 서비스와 관련될 것이다; 더불어 앤트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 수익은 예상된 11%에서 6%로 하향 조절될 것이며, 결제 관련 수익은 2017 년의 54%에서 28%로 하향 조절될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8 억 7 천만의 액티비티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앤트파이낸셜이 현재는 B 클라이언트 고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극히 복잡하고 아직까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회사나 테크놀리지회사로 확정짓기는 어렵고, 국제자본시장과 국내 감독관리기관에 그에 대한 인식 역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앤트파이낸셜은 상장하기전까지 스스로를 원하는 모습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불확정적인 미래를 평가하려면 보다 큰 상상력이 필요하다!

3. 3km 내의 젊은 층을 공략, RT 마트와 알리바바가 1 시간 배달 서비스를 공동 런칭

(출처: 36kr(36氪), 2018.6.12)

중국에 진출한지 어언 20년이 지난 RT마트가 중노년 고객층 확보에 뒤이어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 RT마트는 알리 산하의 허마(盒马)와 타오센(淘鲜)과 협력하여 1시간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1시간 배달 서비스는 샵의 프런트와 백그라운드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허마의 '프런트의 샵과 백그라운드의 제조공장'패턴이다. RT마트는 프런트 창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중 샵 내부의 진열대, 2층 선별구 내지 허마의 배달 시스템이 관건이다.

RT마트의 스텝이 1시간 송달 과정을 시연해 보았다. 우선, 현가식 체인으로 상품을 매장의 선반에서 2층 선별구역으로 이송한다; 다음, 선별구역에서 상품 코드를 활용하여 단품별로 포지셔닝시킨다; 다음 선별구 백도어를 통해 허마 배송지에 배달한다.

RT마트와 허마는 '르르센(日日鲜)'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런칭시켰다. RT마트의 위안빈(袁彬)COO는 36kr의 인터뷰에서 르르센 서비스 모델은 허마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RT마트와 알리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트렌드 기준 당일 판매량을 예측한다. 르르센은 반드시 당일에 소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후 6시면 전부 매진되었다. 이는 고객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계속하여 재고를 늘려야 한다고 위안빈은 보고 있다.

현재, 자베이(闸北)매장에서는 매일 1시간 배달 서비스와 관련하여 1,000건을 처리하고 있고, 618이벤트등 기간에는 일당 3000~4000건을 처리하고 있다.

RT마트는 Tmall 창고에 인기상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Tmall의 상품은 RT마트의 진열대에 오른다.

상하이 RT마트 자베이 매장을 예로, 지금까지 Tmall 상품이 300여 가지가 투입되었다. 사실상 Tmall상품의 진열대 역할을 하고, RT마트에 새로운 영업채널을 추가해준 셈이다.

작년 11월 알리가 RT마트에 137억을 투자한 뒤, 쌍방의 협력은 줄곧 대외로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미 89개의 RT마트가 Tmall 뉴테일 개조를 진행했다. 상기 매장들은 이미 온오프라인 융합을 완성하고, 허마의 3km 배달 서비스권에 편입되었다. 현재, 서우타오(手淘)에서 해산물을 구매하면 1시간내로 배달된다.

올해 11월말 전까지 국내의 393개소 RT마트가 개조를 완성하게 되면 '1시간 배달' 서비스는 억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4. 中 정부, 3,000억 위안의 기금 조성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지원

(출처: 매일경제뉴스(每日经济新闻), 2018.6.13)

6 월 12 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린넨슈(林念修) 부주임과 중국건설은행 왕주지(王祖继) 행장이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기금을 발기설립할데 대한 전략적 협력 각서》에 조인한 소식을 발표했다. 《각서》는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기금을 공동으로 발기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首页 > 委工作动态

国家发展改革委与中国建设银行签署关于共同发起设立战略性新兴产业发展基金的战略合作备忘录

2018-06-12 来源：高技术产业司子站

为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党的十九大精神，全面落实《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和《"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加快建设实体经济、科技创新、现代金融、人力资源协同发展的产业体系，培育发展新动能，强化金融支撑战略性新兴产业发展的能力，国家发展改革委副主任林念修与中国建设银行行长王祖继近日签署了《关于共同发起设立战略性新兴产业发展基金的战略合作备忘录》。

国家发展改革委与中国建设银行将建立战略合作机制，以支持战略性新兴产业发展壮大为目标，共同发起设立国家级战略性新兴产业发展基金，并通过设立子基金等方式进一步吸引社会资金，基金目标规模约3000亿元。基金具体将投向新一代信息技术、高端装备、新材料、生物、新能源汽车、新能源、节能环保和数字创意等战略性新兴产业领域，支持战略性新兴产业重大工程建设，突出先导性和支柱性，优先培育和大力发展一批战略性新兴产业集群，构建产业体系新支柱。

해당 기금은 3000 억위안을 목표로 하고, 이밖에도 서브 펀드를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사회자금을 한층 유치하게 된다. 조성된 기금은 차세대 정보기술, 하이앤드 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차, 신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과 디지털 창의 등 전략성 신흥산업분야에 돌려져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요한 공정건설을 지원하고, 선도산업과 기간산업을 부각시키며, 일련의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발전시키며, 산업체제의 새로운 기둥을 구축한다.

칭화대학교 판웨이(范为)연구원은 과거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처음으로 部·委의 차원에서 전략성 신흥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전략 전환의 결심 및 국가 거시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방향을 대표한다.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미래의 경쟁우세를 취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원력이 높이고, 전략적 신흥산업 또한 발전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12.5'기간,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 년의 4%에서 2015 년에는 8%로 상승되었다.

2016 년 11 월, 국무원이 인쇄발행한 《'13.5'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은 2020 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부가가치가 GDP 에서 차지하는 총액은 15%까지 올리고, 차세대 정보기술, 하이앤드제조, 바이오,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10 조위안 생산규모를 갖춘 새로운 기간산업을 조성하며, 보다 넓은 분야에서 크로스오버 융합된 새로운 성장점을 형성하고, 평균 매년 100 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발전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2017 년 6 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전략신흥산업발전 관련 부처간 합동회의기간, 린넨슈 부주임과 국가개발은행 왕융성(王用生) 부행장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데 대한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의서는, '13.5'기간 국가개발은행은 1.5 조 위안 이상 융자자금을 배당하여《'13.5'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의 21 가지 프로젝트와 혁신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고, 지분투자와 은행대출간 연동 등 혁신적 패턴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력을 높일 것을 합의했다.

올해 3 월, 국가발전개혁위는 중국수출입은행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데 대한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입은행은 '13.5'기간 기업에 8000 억 위안 이상의 융자를 지원하고, 《'13.5'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에서 규정한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주요공정 및 관련 혁신 플랫폼 구축등을 비중있게 지원한다.

최근 1 년간 국가발전개혁위는 선후로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건설은행등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데 대한 협의서를 체결했고, 자금규모는 총 2 조 6 천만 위안을 초과했다.

사실상,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지방차원의 지원력도 뚜렷이 높아졌다.

2017 년 9 월의 《저장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육성 행동계획(2017~2020 년)》은 2020 년에 이르러 저장성 전체의 전략적 신흥산업 종합실력이 뚜렷이 향상시키고, 혁신능력도 대폭 향상시키며, 산업기여도가 뚜렷이 높아지게 하여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제기했다. 주요 매출액은 2.5 조위안을 초과하게 하고, 연 평균 성장속도는 13%를 초과할 것이다.

2018 년 연초, 허베이성은 《허베이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3 년 행동계획》을 출범시키고 2020 년까지 10 개 전문항목의 주요 매출액은 1.7 조위안을 초과; 전성 전략적 신흥산업 증가치가 5000 억 위안을 달성;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상 달할것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장쑤, 허난, 산둥, 간쑤, 산시(陕西)는 명확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독려 및 진흥조치를 제기했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발전 전체의 필연적 룰이다. 2007 년 이전에는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2007 년부터 2017 년 사이에는 투자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 지금은 소비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하는 소비형 사회로 전환해야 하고, 기업의 지능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빠른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판워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5. 2018년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100强 리스트

(출처: 소후하이테크(搜狐科技), 2018.6.13)

6 월 13 일 오전, '2018 글로벌 지능+뉴 비즈니스 서밋'이 상하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렸다. 상하이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상하이 상무위원회, 상하이시 창닝구(长宁区)인민정부의 지도하고, 상하이 창닝구 청년연합회와 이어우(亿殴)회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해 국내 최고 품격 및 규모 AI 산업대회이다.

서밋에서 이어우의 창시자 황위안푸(黄源普)가 '2018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연구보고서'와 '2018 년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100 强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업된 100 개소 중국 인공지능 기업(비상장)은 베이징(49 개), 상하이(22 개), 선전(11 개)등 중국의 12 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안보(16 개), 의료(10 개), 금융(8 소) 등 10 개 분야의 기업들 포진되었다. 과거 리스트업 기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즈니스화'를 기준으로 적용했고, 기업의 2018 년 예상 매출액, 구체 분야에서 비즈니스화 수준을 함께 감안했다.

'인공지능'은 2014 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500 개 이상 투자기관이 600 여억 위안을 쏟아 부었다. 더욱이 2017 년 하반기 후, 상탕(商汤) 테크놀리지, 광스(旷视) 테크놀리지등 기업은 단번에 10 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AI 창업은 엘리트들의 창업이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창업으로 인재, 데이터, 모델링 트레이닝등 모든 단계에서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온 AI 기업들, 2018 년에는 비즈니스화가 가능할까?

이 문제의 답을 얻고저, 이어우 산하의 컨설팅 기관 이어우 싱크탱크의 연구인력들은 수개월의 시간을 투입하여, 전국의 200 개소 AI 기업, 22 개 유명 투자기관을 인터뷰하고 기업의 제품/서비스, 산업 구도, 사업모델, 영리상황, 벤치마킹대상 등 중요한 참조가치가 있는 정보를 확보한 뒤, '2018 년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100 强 리스트'를 정리했다.

해당 리스트는 구체 분야에서 AI 의 비즈니스화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기업의 복합적 실력과 업계 지위는 반영하기 어렵다. 연구범위 및 정보 불투명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누락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2018 년 중국 인공지능 비즈니스화 연구보고서'는 13 개 산업, 61 개 AI 기술응용을 대상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수준과 기술응용수준을 연구했고, 구체적인 사례도 분석했다.

안보, 금융, 인터넷 서비스, 기업 서비스등은 AI 기술이 선행되고 있는 영역들이다. 안보 분야에서 '쉐량(雪亮)프로젝트' 정책하에 인물 데이터, 차량 데이터의 스마트 카메라, 백그라운드 분석 시스템 등 제품의 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민간용 시장에서 안면 인식 게이트가 민간용 시장의 스타상품으로 부상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스마트 리스크 제어와 퀀트투자 기술 응용의 상용화수준이 높아 비즈니스화에 가장 근접한 산업으로 되었다. 금융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누적된 대량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금융분야 비즈니스화를 위해 '자양분'을 제공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번역, 이미지 처리, 스마트 추천, 음성의 텍스트 전환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는 스마트 폰을 게이트로 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일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술응용의 깊이 시각에 분석하면, 컴퓨터 비전, 스마트음성기술, 자연언어이해, 데이터 마이닝등 기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기술응용이 속출하고 있고, 주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스마트 이미징 캡쳐 진료, 안면 카메라 헤드 등 안면이식 관련 기능, 스마트 오디오 등 음성 연동 관련 서비스, 육안검사등 제조업 서비스, AI 칩의 IC 디자인 등이 있다.

인공지능 상용화의 네가지 특징:

1. 빅데이터가 누적, AI 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진척

스마트 마케팅과 금융 리스크 제어가 두가지 전형적 영역이다. 인터넷 광고 투입을 예로, 광고 투입의 정준화는 광고주와 DSP 플랫폼의 핵심니즈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영역의 광고 생태계는 이미 수십년간 존속되어 왔고, 광고 투입 데이터 또한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다. AI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대폭 향상되었고, 컴퓨팅 파워의 개선과 더불어 광고회사는 마이크로 초를 단위로 광고주의 소구와 인류 빅데이터를 매칭시킨 후 정준화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로, 핀여우(品友)의 'MIP 스마트 의사결정 엔진', 바이두 파이낸셜의 스마트 리스크 제어 서비스등이 있다.

2. AI 자체가 반드시 상용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AI 응용은 '멀티 레벨식 현금화'의 특징이 뚜렷하다.

모든 AI 제품 혹은 서비스가 모두 직접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중간 매개체'역할을 통해 해당 제품의 단계별, 기능별로 상용화된 현금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능 스피커, 교육용 로봇 등 지능 기기에서 음성연동기술을 적용한 후 맨-머신 대화방식을 개선시켰다. 지능 기기의 사용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 연동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컨텐츠와

서비스에 있다. AI 기술의 도입으로 컨텐츠와 서비스의 트래픽 분산이 증가되면서 비즈니스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례로, ROOBO 의 'ROS. AI 플랫폼', 추먼원원(出门问问)의 AI 오픈 플랫폼등이 있다.

3.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시켜, 플랫폼 능력 송출

기술 플랫폼형 기업은 산업별, 고객별 특정수요에 따라 플랫폼에 특정된 기능모듈을 도입시키면서 타겟시장의 변두리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기술 개발자보다는 기술을 통합시키는 플랫폼 기업으로, 음성연동, 안면식별, 이미지 식별 등 각종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그의 상부 공급업체로 하고 있다. 플랫폼형 기업의 경우, 다양한 니즈의 응용환경을 겨냥한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도시, 스마트 패밀리 등 분야 기업들이다. 예로, 하이얼의 U+의 'U+클라우드 칩 스마트 패밀리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솔루션', 터미너스의 'DARWIOT 도시급 스마트 사물인터넷 플랫폼'등이 있다.

4. 급성장하는 로봇 시장, 산업체인의 여러 고리를 이끌어 수익 창출기에 진입

AI 제품과 서비스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로봇이다. 최근, 로봇은 온라인 쇼핑몰, 기차역 등 공공장소, 가정 어린이 교육, 노인 간호와 가사 도우미 등 형태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로봇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비쉬안(优必选)의 로봇 솔루션, 스마트 동반 교육용 로봇, 샤오미 청소 로봇등이 있다. 로봇시장의 급성장은 부품, 핵심기술 공급업체의 비즈니스화에 가속도를 올려주었다. 예로, 로봇에게 독립적인 위치 네비게이션, 경로 프래닝을 지원하는 레이저, 레이더 공급업체, 음성 연동기능을 지원하는 칩 모듈등이 있다.

IT오렌지 주보: 6/11~6/17까지 있었던 111개 국내 투자/합병 건

(출처: IT오렌지(IT桔子), 2018. 6. 19)

IT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6.11~6.17)에는 14개 분야에서 총 111건의 국내 투자/합병이 발생했다. 그 중 기업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융 분야이었다. 주로 초기 투자가 많았는데, A라운드 41건, 엔젤 23건 등 초기 투자가 전체 투자의 57%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번 주 인수/합병은 총 9건이 일어났다.

이번 주 발표된 소식 중 가장 큰 융자 사건은 메이퇀디엔핑(美团点评)의 홍콩시장 상장이다. 메이퇀디엔핑은 6월 22일에 정식으로 이번 IPO 사실을 공개할 것이고, 실제 상장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평가된 기업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구글이 징둥(京东)에게 5.5억 달러를 투자하고 양 측이 전략 협력을 맺기로 했다는 사실을 투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BAT가 참여한 투자는 한 건이 있다.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은 싱비엔리(猩便利)에 전략투자를 했다. 광속중국(光速中国). 세콰이어(Sequoia) 등 기타 투자기관들도 투자에 참여했다.

이외 분야 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

B2B 약품 판매 플랫폼 약사방(药师帮)이 1.1억 규모의 B 라운드 투자를 받았다.

생활

6월 12일, 뤼싱커피(瑞幸咖啡)가 A라운드 융자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융자 규모는 2억에서 3억 위안에 달하며, 투자 후 기업가치 평가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교육

최근, 유아교육기업 화라라유아미술학원(画啦啦少儿美术课堂)이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A+ 라운드 융자를 유치했다.

기업서비스

6월 12일, 기계시각 관련 기업 YIYU(依图科技)는 2억 달러 규모 C+ 라운드 융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ICBC Itnl(工银国际), SPDBI(浦银国际), 가오청 캐피탈(高成资本)이 이번 융자에 참여했다.

하드웨어

신에너지 분야 유니콘기업 CATL(宁德时代)은 전지, 에너지 저장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선전증권거래소 창업반(创业板)에 상장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번 주 들어 새로운 자동차 제조사 바이텅자동차(拜腾汽车)가 B 라운드 융자를 유치했고, 규모는 5억 달러이다.

문화엔터테인먼트

6월 14일, 문화엔터테인먼트 IP 운영기업 위위에문화(娱跃文化) 3.7억 규모의 A라운드 융자를 마무리지었다.

물류

6월 12일, 도심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웨이지에청페이(唯捷城配) B 라운드 1.16억 위안의 융자 받았다.

주간 투자현황 일람표

분야	기업명칭	일시	투자단계	금액(위안)	투자자	유형
생활	싱비엔리(猩便利)	2018-06-11	전략투자	미공개	Sequoia(红杉资本中国) Lightspeed China Partners (光速中国) China Renaissance(华兴资本) Vison+ Capital(元璟资本) 앤트파이낸셜	투자
	Luckin Coffee(瑞幸咖啡)	2018-06-12	A	미공개	미공개	투자
	Green Olive(青橄榄)	2018-06-12	A	1천만	Headwaters Capital(盛水渊资本)	투자
	구어샤오메이(果小美)	2018-06-13	C+	미공개	Riverhill Fund(湖畔山南资本)	투자
	총우즈청(宠物之城)	2018-06-13	전략투자	수백만	SF Express(顺丰速运)	투자
	환슝테크놀러지(幻熊科技)	2018-06-14	B	수억	口碑网	투자
전자상거래	CPX*	2018-06-11	합병	5.5억	美尚生态	합병
	쥐보망(聚玻网)	2018-06-12	B	수억	Sinowisdom(华睿投资)	투자
	요우비아오(有表)	2018-06-12	A	미공개	한투파트너스	투자
	인만내의(茵曼内衣)	2018-06-13	프리-A	1천만	Plum Ventures(梅花创投)	투자
	MISSOSE(童装)	2018-06-14	엔젤	수백만	미공개	투자
	징동(京东商城)*	2018-06-18	IPO상장	5.5억 달러	Google	투자
	취엔즈마이(全之脉)*	2018-06-18	C	7.8억	升达林业	투자
부동산	반반테크놀러지(办伴科技)	2018-06-13	A+	1.5억	沨华资本	투자
	샤오팡슝(小胖熊)	2018-06-15	A	1천만 달러	MatrixPartners China(经纬中国)	투자
광고·마케팅	L-SPACE	2018-06-11	시드	2백만	미공개	투자
교육	징다카(鲸打卡)	2018-06-11	A	수천만	Yonghua Capital(涌铧投资)	투자
	베이러후(贝乐虎)	2018-06-11	프리-A	1천만	Datong Capital(大通资本)	투자
	러쉬에시(乐学习)	2018-06-11	프리-A	1천만	미공개	투자
	피피위유아영어(皮皮鱼少儿英语)	2018-06-11	프리-A	8천만	GGV(纪源资本) Blue Lake Capital(蓝湖资本) Hike Capital(山行资本) Hike Capital(山行资本)	투자
	뤼커교육(睿刻教育)	2018-06-12	시드	2백만	미공개	투자
	HnR신셩리(HnR新升力)	2018-06-13	엔젤	수백만	Sourcecode Capital(源码资本)	투자
	화라라유아미술학원 (画啦啦少儿美术课堂)	2018-06-14	A+	수천만	ZhenFund(真格基金) 好未来(学而思)	투자
	다스마(大思码)	2018-06-14	엔젤	5백만	Goerge Wang	투자
	칭찬교육(青蚕教育)	2018-06-14	엔젤	수백만	立思辰	투자
	위싱교육(育星教育)*	2018-06-15	합병	33.11백만	海伦钢琴	합병
	퍄오신교육(朴新教育)	2018-06-15	IPO상장	1.22억 달러	미공개	투자
금융	Lendchain	2018-06-11	엔젤	1천만	PreAngel GXChain GXChian Capital Bitpie 边界资本 裂变资本	투자
	인다런(影大人)	2018-06-11	전략투자	1천만	雨木时代	투자

	SoPay	2018-06-11	엔젤	미공개	了得资本	투자
	비콰이바오(币快报)	2018-06-11	A	2천만 달러	JRR Crypto	투자
	BKEX	2018-06-11	전략투자	수천만 달러	黄天威 싱가폴1688기금 Seed Capital(种子资本) 彗星资本	투자
	Token360	2018-06-12	엔젤	미공개	JD Capital(九鼎资本) Plum Ventures(梅花创投)	투자
	Weever	2018-06-12	엔젤	5백만 달러	Higgs Block	투자
	인둬망(银多网)	2018-06-13	C	8천만	买单侠 小黑鱼科技	투자
	허위에즈푸(和悦智付)	2018-06-13	A+	5천만	Shenzen VC(深创投)	투자
	토우즈지아(投之家)	2018-06-15	B	4.09억	珈伟股份	투자
	Social Lending	2018-06-15	전략투자	수천만	张敬华 成从武	투자
	샤오징쿠(小鲸库)	2018-06-15	A	수백만 달러	徐汉杰 吴彬	투자
	블록체인대륙(区块大陆)	2018-06-15	엔젤	1천만	Northern Light Venture (北极光创投) 星合资本	투자
	Tokenonly	2018-06-15	엔젤	1천만	JRR Crypto OK Blockchain Capital	투자
	후이푸텐샤(汇付天下)	2018-06-15	IPO상장	미공개	미공개	투자
여행	소우팡처(搜房车)	2018-06-12	엔젤	수백만	投控东海投资 Hofan Ventures(浩方创投)	투자
	콰이방싱(快帮行)	2018-06-14	엔젤	수백만 달러	Daocin(道生资本)	투자
기업서비스	AVATAR Network	2018-06-11	엔젤	1천만	JX VC(聚秀资本) Daocin(道生资本) Achain生态基金 kCash基金会 万币资本	투자
	타오미테크놀러지(淘米科技)	2018-06-11	프리-A	3천만	中旌寰宇	투자
	지우저우윈텅(九州云腾)	2018-06-11	A	6천만	Qiming Venture Partners (启明创投) Fortune Capital(达晨创投)	투자
	녹생동력(绿色动力)	2018-06-11	IPO상장	미공개	미공개	투자
	비니우니우(币牛牛)	2018-06-11	전략투자	수천만	了得资本 回向基金	투자
	Agora셩망(Agora声网)	2018-06-11	B+	3천만 달러	Morningside Venture Capital (晨兴资本) GGV(纪源资本) Shunwei Capital(顺为资本) SIG(海纳亚洲)	투자
	텐촹정보(天创信息)*	2018-06-11	합병	2.3억	中富通	합병
	구셴다오(古纤道)*	2018-06-11	합병	56억	金浦钛业	합병
	쟝수텐냐오(江苏天鸟)*	2018-06-11	합병	미공개	楚江新材	합병
	후이스롄(慧世联)	2018-06-12	A	미공개	ZhengXuan Investment(正轩投资) 霍尔果斯市幻景投资管理合伙企业(普通合伙) 万秋阳	투자
	YITU(依图科技)	2018-06-12	C+	2억 달러	ICBC Itnl(工银国际) SPDBI(浦银国际) 高成资本	투자

	롄징테크놀러지(联鲸科技)	2018-06-12	시드	수백만	紫竹创投 紫竹小苗基金	투자
	파다다(法大大)	2018-06-13	B+	수억	Vison+ Capital(元璟资本) HMC Venture(和盟创投) Bojiang Capital(博将资本) 汇付创投	투자
	러푸테크놀러지(热璞科技)	2018-06-13	A	미공개	CreastValue(如山资本)	투자
	텐윈빅데이터(天云大数据)	2018-06-13	D	1억	Meridian Capital China (华映资本) Ally Capital(曦域资本)	투자
	다위U판(大鱼U服)	2018-06-13	프리-A	1천만	River Capital(大河创投)	투자
	진셩왕쥐(金盛网聚)	2018-06-14	엔젤	수백만	东方盛鼎	투자
	이허테크놀러지(壹鸽科技)	2018-06-14	엔젤	1천만	Puxi Capital(普西资本)	투자
	Patsnap(智慧芽)	2018-06-14	D	38백만 달러	Sequoia(红杉资本中国) Shunwei Capital(顺为资本) Qualgro	투자
	위안요우(原优)	2018-06-15	A	수천만	Unity VC(九合创投)	투자
	우콩즈후이(悟空智慧)	2018-06-15	엔젤	수백만	미공개	투자
	Vite	2018-06-15	전략투자	미공개	Hash Capital(哈希资本) 老王资本	투자
	관용테크놀러지(冠勇科技)	2018-06-15	B	8천만	招商局资本 海通创意资本	투자
	Merculet	2018-06-15	전략투자	미공개	杨向阳 共识实验室	투자
	샤오황거우(小黄狗)	2018-06-15	A	10.5억	中植集团	투자
	웨이텐샤(微天下)	2018-06-15	A	2억	BaoYing Investment(宝鹰投资)	투자
	GRE글로벌리스크거래소 (GRE全球风险交易所)	2018-06-16	전략투자	미공개	火币全球生态基金	투자
자동차·교통	바이텅(拜腾)	2018-06-11	B	5억 달러	CATL 一汽集团	투자
	페이부(飞步)	2018-06-12	엔젤	수백만	Sinovation Ventures(创新工场)	투자
	처둬둬(车多多)	2018-06-13	A	17.7백만 달러	China Growth Capital(华创资本) Sourcecode Capital(源码资本) 易鑫集团 李星星	투자
	마이마이처(迈迈车)	2018-06-13	A+	미공개	미공개	투자
	펑샹자동차(蓬翔汽车)*	2018-06-13	합병	미공개	长春一东	합병
	싱위테크놀러지(星舆科技)	2018-06-15	프리-A	1억	博汇源创投 湖南高新投	투자
	팅카이신(停开心)	2018-06-15	A	수천만	Star VC Edge Ventures(青锐创投) Ginkgo Gofar(盈信国服)	투자
문화/ 엔터테인 먼트	중메이그룹(众媒集团)	2018-06-11	프리-A	4천만	李笑来 INBlockchain(硬币资本) Node Capital(节点资本) Qtun(量子基金) 遨游集团	투자
	수이선팅(随身听)	2018-06-14	엔젤	수백만	远望资本	투자
	ChainDD(链得得)	2018-06-15	A	미공개	MSA Capital(和玉资本) Funcity Capital(泛城资本)	투자
	위위에문화(娱跃文化)	2018-06-15	A	3.7억	Meridian Capital China (华映资本) 头头是道投资基金	투자

					Yao Capital(曜为资本) 众源资本 Hexin Capital(和信资本)	
	찬인지에신매체(餐饮界新媒体)	2018-06-17	엔젤	수천만	亿农投资	투자
물류	웨이지에도심택배(唯捷城配)	2018-06-12	B	1.16억	Sinovation Ventures(创新工场) SAIF Partners China (赛富投资基金) DCHIEN(德乾投资) Broadway VC(广道创投) 猎鹰投资 金圆创投	투자
의료/건강	더샹윈싱(德尚韵兴)	2018-06-11	B	미공개	HG Capital(华盖资本) 复星医药	투자
	사이펀테크놀러지(赛分科技)	2018-06-11	A	미공개	华泰大健康基金	투자
	스웨이생물(斯微生物)	2018-06-11	A	미공개	龙磐投资 朴弘资本	투자
	텐마이생물(天麦生物)*	2018-06-12	합병	40억	誉衡药业	합병
	사이나생물(赛纳生物)	2018-06-12	전략투자	수천만	Qiaojing Capiital(乔景资本) THG Ventures(清控银杏创投)	투자
	지랑생물(济朗生物)	2018-06-12	B	미공개	湖北高投 Sangel Capital(仙瞳资本)	투자
	커페이핑(柯菲平)	2018-06-12	전략투자	수천만	KaiTai Capital(凯泰资本)	투자
	야오스방(药师帮)	2018-06-14	C	4.2억	DCM(DCM中国) Green Pine Capital Partners (松禾资本) Shunwei Capital(顺为资本) SIG(海纳亚洲) ECC Capital(高捷资本)	투자
	진룬의약(金仑医药)*	2018-06-14	합병	7.5억	中国医药	합병
	청이자런(橙意家人)	2018-06-14	B+	수천만	重山资本(New Vision Ventures) 필립스	투자
	잉롄왕(影联网)	2018-06-15	A	수천만	重山资本(New Vision Ventures) iFLYTEK	투자
	슝마오판다(熊猫攀达)	2018-06-15	엔젤	미공개	Plum Ventures(梅花创投) 不惑创投	투자
	무언생물(慕恩生物)	2018-06-15	프리-A	6천만	HighLight Captial(弘晖资本) 广州越秀产业基金 智朗创投	투자
하드웨어	완지아롄(万加链)	2018-06-11	엔젤	2천만	APOFCO(亚粮资本)	투자
	어즈로봇(尔智机器人)	2018-06-11	A	3천만	珠海高新创投 博杰电子	투자
	CATL(宁德时代)	2018-06-11	IPO상장	54.62억	미공개	투자
	뤼사이더(睿赛德)	2018-06-12	A	수백만 달러	Legend Capital(君联资本)	투자
	안웨이얼(安维尔)	2018-06-12	A	36백만	多维资本	투자
	다화기계(大华机械)*	2018-06-13	합병	미공개	미공개	합병
	판화지능(泛化智能)	2018-06-14	프리-A	1천만	Good Capital(高达资本)	투자
	쥐요우즈넝(炬佑智能)	2018-06-15	엔젤	미공개	Glory Ventures(耀途资本)	투자
게임	덴징테크놀러지(点晴科技)	2018-06-11	A	수천만	Milestone VC(界石投资)	투자
	샤오지우워(小酒窝)	2018-06-11	프리-A	수백만	七煌TV 熙道	투자
	해시세계(哈希世界)	2018-06-12	A	2백만 달러	Shunwei Capital(顺为资本)	투자
	커싱치우(氪星球)	2018-06-14	엔젤	7백만	Danhua Capital(丹华资本)	투자

					AC Accelerator(AC加速器) 水木区块链基金	
	푸둬데이터(浮多数据)	2018-06-14	A	1천만	竞远投资(Esport Capital)	투자
	Ludos	2018-06-15	전략투자	미공개	创世资本 Collinstar Capital(科银资本) 万链资本 Punk资本	투자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AI 특집 (2018. 6. 11 ~ 2018. 6. 13)

1. 안후이성, 2030년까지 산업규모 1,500억 위안 달성한다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계획 발표

(출처: 앙광망(央广网) , 2018.6.11)

양광신문(央广新闻)은 안후이성(安徽省)이 지난 7일 '안후이성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계획'('安徽省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计划')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안후이성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산업 규모를 1,500억 위안까지 키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현재 가장 트렌디 한 산업 중 하나이다. 안후이성은 자신들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시키기에 좋은 기초조건과 비교우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의 핵심, 두 가지 지역, 여러 지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 산업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핵심'이란 '중국(허페이(合肥)) 스마트음성 및 인공지능 산업기지(중국음성벨리)'가 안후이성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맡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지역'은 우후(芜湖)와 마안산(马鞍山)의 '전략적 신흥산업 집합발전기지(战略性新兴产业集聚发展基地)'를 이용해 스마트공업로봇과 특수로봇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뜻하고, '여러 지방'은 수저우(宿州). 화이난(淮南), 벙부(蚌埠) 등 지역이 가진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발전 우세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더 많은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은 또한 각 단계별 목표를 설명하기도 했다. 중, 단기 목표는 2020년까지 안후이성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150억 위안이 넘도록 하고 관련 산업 규모는 1,000억 위안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1,500억 위안에 달하는 것과 관련 산업이 1조 위안 이상의 규모를 갖는 것이다.

2. CES Asia 2018 오는 13일에 개최 예정,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기업 참가

(출처: 취동중국(驱动中国), 2018.6.11)

이번 CES Asia는 6월13일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ES는 최신 트렌드에 따라 인공지능 전시구역을 마련했다. 중국은 올해 기술제품 소비에서 성장세 이룰 것이고, 중국의 스마트홈과 다른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5G의 도래에 따라 한걸음 더 발전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은 소비자로부터 인정 받게 될 것이다.

이번 AI전시구역에는 각 나라 및 지역의 35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 중에는 바이두DuerOS, 알리바바 인공지능랩, IFLYTEK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치뤼 자동차, iFLYTEK과 AI발전기금 조성

(출처: 인민망(人民网) , 2018.6.11)

치뤼(奇瑞) 자동차와 iFLYTEK이 함께 'AI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치뤼 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에 가진 능력과 iFLYTEK이 음성기술에 가진 능력, 그리고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 개발 능력을 결합해 AI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체인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치뤼와 iFLYTEK 양측은 설비지원, 플랫폼 건설, 인재 교류 및 관련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면에 협력한다고 말했다. 치뤼는 새로 출시한 뤼후8(瑞虎8) 차종을 iFLYTEK과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또한 교육기관에서 창출해낸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턴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장학금을 창설하는 것 외에도 AI주행 대회와 같은 행사를 마련해, 조건에 맞는 협력 교육기관에 또 다른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4. YITU, 2억 달러 투자 유치하며 국내 4대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중 하나로 등극

(출처: 인민망(人民网), 2018.6.12)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YITU가 2억 달러 규모의 C+라운드 융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YITU 측은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임상 응용에 사용하고, 인공지능 의료팀을 구성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4대 AI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YITU는 기계시각 기술을 보안, 금융, 의료 이 세 가지 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상장기업 중 하나인 시링정보(熙菱信息)는 YITU가 줄곧 그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다고 밝혔고 YITU와 유사한 기업인 징퉈유한회사(颈拓股份)의 기계시각 관련 상품은 작년에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5. 4개 분야 위주로 하는 '세계인공지능 창업대회' 상하이에서 개최

(출처: 앙광망(央广网), 2018.6.13)

6월 13일, 상하이에서 '세계인공지능 창업대회(2018 AI-WIN)'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를 나침반으로, 미래를 항해하자(启迪智能，启航未来)'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었으며 글로벌화, 전문화, 고급화라는 각도에서 인공지능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모으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인공지능의 국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분야로 대회를 나누어 더 폭넓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상하이가 인공지능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대회에서 나눈 4개 분야는 인간-기계 교류 서비스와 인공지능 의료,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로봇이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제일 우수한 3팀은 'SAIL(Shanghai AI Leader) 대상'을 받게 된다.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며, 이 대상을 수상한 프로젝트들은 세계 인공지능 분야의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주최 측은 인공지능 발전 추진의 목표는 AI와 산업을 융합시켜 AI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산업 핵심능력으로 내재화 되어야지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상하이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인재들을 모아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낼 것이라 밝혔다.

상하이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추진 의견'을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인공지능 산업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인공지능 산업 체인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관련 산업 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상하이는 법인, 사람, 공간지리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일 평균 데이터 거래 수는 전국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 인공지능 인재 중 1/3은 상하이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bot & AI (2018.6.19)

SV INVESTMENT

본 자료는 SV Investment(http://svinvestment.co.kr)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증권사 레포트, 신문, 협회 등의 언론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사원(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사원(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사원, 번역: 신재민, 이규혁 (북경대 광화관리학원)]

1. 중국, 공업용 로봇 국산화 추진, 자체 브랜드 선두기업 황금시대 열어

공업용 로봇은 기기 본체, 제어 시스템, 구동 및 전송 시스템과 센서 등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업용 로봇은 다양한 공업용 분야에 응용되는 다관절 로봇 또는 고 자유도의 기기 장치로서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자체 동력과 제어 능력으로 설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IFR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업용 로봇은 전체 로봇시장의 약 71%를 차지

공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320 억 위안	82 억 위안	46 억 위안
점유율 71%	점유율 18%	점유율 11%

(출처: IFR, 중태증권 리서치)

공업용 로봇 후방산업의 핵심 부품은 감속기, 서보 시스템, 제어기, 중간산업은 본체 생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방산업은 단일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업체, 종합 SI 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공업용 로봇은 주로 본체와 SI 쪽에 집중되어 있다. GGII 의 데이터에 따르면 `17 년 중국 로봇 본체 시장은 약 320 억 위안, SI 시장은 약 535 억 위안, 핵심 부품 시장은 약 210 억 위안으로 추정되었다. 위 세 시장의 비율은 1:1.7:0.6 이었다.

지난 5 년간 본체 시장 대비 SI 시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당사는 저가 SI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하락세로 보고, 향후 본체 연구개발능력을 장악하고 프리미엄 SI 시장에 위치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2. 세계 최대 로봇시장 중국,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수요 몰고 올 것

(1) `17 년 중국 로봇 판매량 56% 증가, 5 년 연속 세계 제 1 시장 등극

근래 들어 중국 로봇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속도와 시장점유율은 다른 국가들을 훨씬 앞섰고 5 년 연속 세계 로봇 제 1 시장에 등극했다. GGII 의 데이터에 의하면 `17 년 중국 로봇 판매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3 만 6000 대에 달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본체 및 SI 시장은 전년대비 37% 성장한 855 억 위안에 달한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17 년 중국 공업용 로봇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3 만 대에 달할 것이다. `18 년 1~2 월 생산량은 `17 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 만 9000 대에 달했다.

(2) 중국 로봇 밀도 아직 낮은 수준, 상승여력 충분

중국의 로봇 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IFR 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각지의 생산자동화는 점진적으로 가속화되어 가는데, `17 년 세계 공업용 로봇 밀도는 1 만 명당 74 대에 달했다. 중국의 로봇 밀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3 년의 1 만 명당 25 대에서 `16 년의 1 만 명당 68 대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 24 위에 위치하며 아직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

(3) 로봇 시장 향후 3 년 예측 CAGR 20.4%, `20 년에 1,511 억 위안 도달

<로봇 산업 발전 계획(`16~`20 년)>에 의하면 중국은 `20 년에 로봇 밀도가 1 만 명당 150 대에 달해 글로벌 TOP 10 에 진입할 것이다. 이는 `16 년 대비 121% 상승한 수치이다. 로봇 보유량은 66 만대, 연평균 수요는 16.5 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향후 3 년 동안 중국 로봇 판매량이 생산 계획 목표를 초과하고 IFR 의 예측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로봇 가격의 하락을 고려했을 때, `18~`20 년 로봇 매출액은 CAGR 18~23% 수준에 도달, `20 년 로봇 본체 매출액은 560 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SI 과 본체 비율의 비율이 약 1.7:1 임을 감안하였을 때, SI 시장 규모는 951 억 위안, 로봇 시장 규모 합계는 1,511 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3. 글로벌 시장 여전히 국제 선두 기업이 독점, 끝없는 국산화 시도

제어기, 서보모터, 감속기는 로봇의 3 대 핵심 부품으로 불리며 로봇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의 공업 로봇의 3 대 핵심 부품은 줄곧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제어기: 중국산과 수입산의 격차가 제일 작음

제어기는 로봇의 대뇌이며 동작 신호를 송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는 공업 제어 메인보드로 CPU 유닛, 신호처리 파트를 포함하는 회로이며 해당 부문은 이미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제어 알고리즘, 2 차개발(tailor-made software development: 현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수요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중국산 제품은 안정성, 반응 속도, 이용의 용이성 등 방면에서 수입품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서보모터: 외자기업의 점유율 절대 우세

<중국로봇산업발전백서(`16 버전)>의 데이터에 의하면 서보모터와 구동기의 80% 이상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 유럽 및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계 브랜드는 우수한 제품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중소형 OEM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감속기: 전면 대체 불가능에 가까움

감속기는 로봇의 동작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더 큰 모멘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로봇 감속기 시장은 고도의 독점 현상을 보이고 있고 보급단계에 놓여있는 중국산 감속기가 전면적으로 수입산을 대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감속기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기 설치대, 상박, 어깨 등 큰 부하가 걸리는 위치에 설치되는 RV 감속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박, 손목 혹은 손 등 작은 부하가 걸리는 위치에 설치되는 고조파 감속기이다. RV 감속기는 일본 Nabtesco 사가, 고조파 감속기는 일본의 Harmonic Drive Systems 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중국업체 핵심 기술 장벽 허물기 위해 부단히 노력

몇 년 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 로봇 제조업체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리고 일부 핵심부품(서보모터, 제어기 등) 분야에서 자체 연구개발 및 시장 확장 등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업체, 핵심 부품 분야에서 부단한 돌파 시도

핵심 부품	국내 연구개발 기업	상품	진전 현황
감속기	상해기전(上海机电)	RV 감속기	2013년 Nabtesco와 합자하여 공장 설립
	슈앙환환동(双环传动)	RV 감속기	2015년 11월 감속기 상품 출시
	QCMT&T(秦川机床)	RV 감속기	2015년 11월 감속기 상품 출시
	Han's Laser(大族激光)	고조파 감속기	2017년 1월 소량 생산
	샤오넝주식(韶能股份)	RV 감속기	2015년 11월 2.3억 위안 투자 발표
제어기, 서보모터	신송로봇(新松机器人)	통용 로봇 제어기, 서보모터	자체 제작 아크 용접용 로봇 등 어댑트(适配)
	화중슈콩(华中数控)	HSROBOT(华数机器人)제어기, 서보모터	서보모터 시스템 산업화 완성
	구가오과기(顾高科技)	다종 로봇 운동제어시스템, 서보모터	양산화 실시 및 국내 본체 생산 기업에 배치
	Inovance(汇川技术)	로봇 제어기 핵심 부품, 서보모터	서보모터 국내 응용 다수

(출처: 중국로봇망, 중태증권 연구소)

4. 주요 추천 종목: 로봇 섹터: Midea, 상해기전, Estun, Inovance 등

로봇 제조 원가의 끊임없는 하락으로 투자 회수기가 눈에 띄게 단축되어 로봇 산업의 황금 매수기를 이끌고 있다. 동시에, 국내 로봇 판매량 증가 속도는 전세계 평균 증가 속도보다 높아 시장 성장 여력이 거대하다. 국내 로봇 기업은 국내 시장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끊임없는 국산화의 추진에 힘입어 훗날 해당 분야 국제 선두의 위치에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로봇 산업의 국내 선두 기업인 신송로봇(新松机器人, 300024.SZ)를 강력하게 추천한다(산업인터넷 벤치마크, 반도체 설비 신성, 실적 증가 전망)

관심 종목으로는 상해기전(上海机电, 600835.SH) (글로벌 감속기 1 위업체 일본 HDS, 대주주 상해전기(上海电气, 601727.SH)와 일본 최대 로봇업체 Fanuc 합자기업), Inovance(汇川科技, 300124.SZ) (공업자동화 선두업체, 서보모터 수입 대체 여력 거대), Estun(埃斯顿, 002747.SZ) (자체 핵심부품 연구개발, 양저우서광(扬州曙光) 인수, 군수산업 자동화 분야 진출), 중다리더(中大力德, 002896.SZ) (감속기, 서보모터 중국 자체 브랜드), Midea(美的集团, 000333.SZ) (글로벌 4 대 로봇업체 독일 KUKA 인수), 커라이기전(克来机电, 603960.SH), Topstar(拓斯达, 300607.SZ) 등이 있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2018. 6. 15)

PLAYCOIN

1. 중국 블록체인 인재 연봉, 인터넷 제쳤다.

(출처: ZDNet Korea, 2018.6.12)

중국에서 블록체인 인재를 구하려는 기업 간 전쟁이 심화하면서 연봉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시장조사업체 블록데이타(BlockData)가 구직 플랫폼 라거우왕과 함께 발표한 '2018 중국 블록체인 인재 백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블록체인 인재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급 평균액이 인터넷 업종에 비해 1만 위안(약 168만 1천500원)이 더 높게 형성됐다. 연 기준으로 한화 2천만원이 넘는 격차를 보인 셈이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들어 블록체인 관련 직종의 월급 인상세가 심상찮다. 구체적으로 기술, 상품, 운영, 시장 등 네 가지 분류에서 블록체인 직종 월급 평균이 각각 2.85만 위안(약 479만 원), 2.18만 위안(약 366만 원), 1.39만 위안(약 233만 원), 1.44만 위안(약 24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5.9%, 2.3%, 18.8%, 5.1% 상승했다.

반면 인터넷 업종 월급은 기술, 상품, 운영, 시장 등 네 가지 분류에서 각각 1.82만 위안, 1.78만 위안, 1.2만 위안, 1.42만 위안을 기록해 블록체인 대비 크게는 1만 위안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기업의 성장으로 인터넷 업종 종사자 연봉이 전 산업군 최상위권에 드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백서는 중국에서 블록체인이 초기 규모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복합형'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점이 인건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재 결핍 문제가 심화했다. 분기별로 채용 건수 증가 속도는 200%씩 늘었지만 인재 수는 크게 못미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분기 기준 구인 건수는 지난해 4분기 보다 300% 늘어나 6천 개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 구인 수는 1만 개를 넘어섰다.

백서는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가 많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인 기업을 분석했을 때 직원 20~99명 기업 비중이 4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직원 100~499명인 기업 비중은 24% 였다.

백서는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대기업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인력 구성이 일정부분 갖춰져 초기 임무 구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인재 중 30~40대 비중이 60%를 차지했으며 지역적으로는 상하이와 베이징에 주로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2. 중국은행 블록체인으로 신용 사기 막는다.

(출처: 블록인프레스, 2018.6.15)

중국의 쑤닝 은행(Suning Bank)은 다른 은행과 공유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중국의 한 언론매체가 전했다.

쑤닝 은행은 쑤닝이 2017년 설립한 계열사로, 중국 최초의 O2O(Online-to-Offline) 상업은행이다.

쑤닝 은행이 개발한 블록체인은 블랙리스트 채무자들을 분산 네트워크상에 등록함으로써 다른 은행이 이를 통해 신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이번 블록체인의 노드 역할을 하게 되며, 쑤닝 은행에 의해 공유된 블랙리스트에 접속하고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쑤닝 은행은 작년 9월, 씨틱(CITIC)과 민셩(Minsheng)이 국내신용장에 이체내역을 기록할 목적으로 개발한 공용 블록체인에 참여한 바 있다.

3월에 씨틱은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이 10억 위안(한화 약 1,700억 원) 어치의 이체를 성공시켰다고 선전한 사례가 있다.

이는 목적을 달리 하는 쑤닝 은행이 가지게 될 잠재적 가치를 일부 대변하며, 동시에 중국의 블록체인 활용 범위와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33) (2018. 6. 17)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미디어&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가 기고한 것 입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체험은 신시장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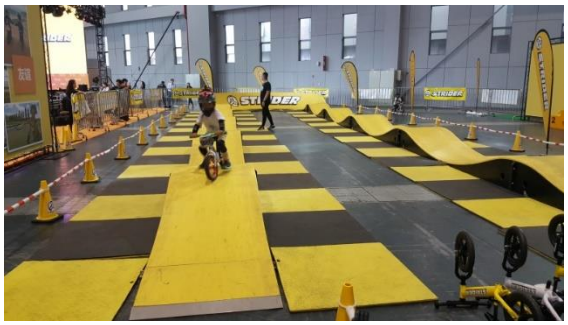
사장님은 현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살 사람은 100 인데, 만드는 물건 혹은 서비스는 150 이다. 50 이 남을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한정된 시장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자 한다. 파이는 어떻게 키우나? 해외 시장 개척이 하나의 대안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곳에 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도 가서 확실하다면 갈 만하다.

그런데 이 시장도 조만간 포화가 된다. 또 다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시장에 진입은 그곳 문화를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쉽다.

<거친 땅에서 페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

산악자전거는 어린 꼬마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3~5 세 꼬마에겐 세발자전거 혹은 두 발 자전거에 조그마한 보조 바퀴가 붙은 것이 전부였다. 동네에서 타고 노는 정도였다. 이 정도에서 개발하였고 가격으로 경쟁하였다. 그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디자인을 바꿔도 뻔한 것이 되었다.



<라이딩 코스에서 페달 없는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

한국, 일본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만드는 모든 자전거 회사는 문을 닫았다. 가격 경쟁에서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페달 없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만들었다. 자전거에 페달도 브레이크도 없다.

이 자전거는 두 발로 힘차게 내처 달린다. 멈출 때는 발로 땅에 딛고 멈춘다. 꽤나 야성적이다. 페달을 밟고 달리는 자전거와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한다. 신개념의 자전거로 포지셔닝 하였다. 이 시장에서 이 자전거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생각하지 못한 사용 방법으로 신개념의 자전거를 만들어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니, 새로운 수요가 탄생하였다. 제품 개발에 핵심은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사용 방법이다. 그럼 신개념이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KIC 중국 NEWS

1.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직원 모집

KIC중국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고 한국 스타트업 기업 중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주로 창업정보, 창업교육, 창업대회,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투자유치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채용인원(총 2명): 투자유치팀 1명, 교육팀 1명

◆ 업무내용

1. 투자유치팀: 중국 VC와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2. 교육팀: 교민 및 유학생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개최

◆ 자격요건

- 중국국적자

- 4년제 대학졸업(본과) 혹은 석사졸업예정 이상인 자

- 중국어와 한국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TOPIK 6급 이상)

- 해외출장에 결적사유가 없는자

- 컴퓨터 활용 숙련자(MS-Office 등)

- 전공분야, 성별, 연령 제한 없음

*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서류접수기한: 2018. 6. 22(금) 18:00까지

◆ 합격자 발표: 2018. 6월 중 개별통보

◆ 업무일: 2018. 7월 중 개별통보

◆ 급여: 6,000~12,000(학력 및 경력에 따른 협의)

◆ 업무장소: 중관촌 창업거리 6번빌딩 4층

◆ 제출 서류

- 한국어 및 중국어 이력서 각 1부(2페이지 내 자유양식)

- 한국어 자기소개서 1부(2페이지 내 자유양식)

- 최종학위증명서 및 관련 경력 증빙서류(자유양식)

◆ 접수처: renmingran@kicchina.org (임명연)

2. KIC중국, 제2회 창기미래 재중국한국유학생 제4차산업혁명 창업대회 개최

- 주중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KIC 중국,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북대인큐베이터가 공동으로 주관

- 1 등 팀에게는 1 만 위안의 상금을 수여하고,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는 창업대회 참가증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혁신센터(KIC)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6 월 16 일(토)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에 위치한 KIC 중국 창업공간에서 "제 2 회 창기미래 재중국한국유학생 제 4 차 산업혁명 창업대회"(제 2 회 유학성 창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대회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진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주중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KIC 중국,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북대인큐베이터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사진 1: 제 2 회 창기미래 재중국한국유학생 제 4 차산업혁명 창업대회 단체사진>

주최 측은 지난 4 월 16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한 달 간 서류접수로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 개 팀이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제 2 회 한국유학생 창업대회는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과 중국인이 팀을 이루어 참가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중국시장 개척이 가능한 창업아이템을 대상으로 한다.

KIC 중국은 참가자들의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5 월 25 일, 6 월 2 일, 6 월 9 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한 바 있다. 1,2 차 멘토링에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플랜 작성법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했고, 3 차 멘토링에서는 발표력 향상 교육 및 1:1 멘토링을 진행하여 참가팀이 수월하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박지민 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이승원 과기정통관(과기정통부 파견)이 축사를 했다.

본 대회 심사위원장은 북대인큐베이터 대표가 맡았으며, 대회 진행에 앞서 심사규정을 소개했다. 본선에 진출한 10 개 팀들은 각 팀 당 7 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으며, 발표 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1 개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2: '신광차이(新光彩)'팀이 1 등상을 수상했다>

모든 팀의 발표가 끝난 뒤, 중국전자상회 치보 부비서장은 '인터넷방송과 신유통' 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현재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신유통에서는 '인터넷방송'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3: 중국전자상회 치보 부비서장이 특강했다>

특강이 끝나고 이어진 결과발표에서 신광차이(新光彩)팀이 1 등을 차지하였고, Knock! Knock!, Hug Box, SF COFFEE, 샤오얼메이(小而美) 순서로 2 등, 3 등,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일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그 외에도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KIC 중국과 북대인큐베이터가 공동으로 발행한 창업대회 참가증을 부여하였으며, 본선 진출팀 대표 모두에게는 KIC 중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국내 창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글로벌혁신센터이다. KIC 중국은 자국민의 중국 현지 창업과 국내 창업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성공적 안착까지 전주기 맞춤형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정보 제공, 창업 교육,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과 중국 VC 를 연계한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KIC 중국은 2016 년 6 월 베이징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2017 년 2 월, 중관촌 창업 거리에 창업공간을 오픈하고, 25 개 기업을 인큐베이션 하였으며, $550 만불의 투자유치와 $490 만불의 중국 매출을 달성하였다.

3.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추진계획(안)v2.0

(18.6.13. 한국혁신센터(KIC)중국)

■ 사업개요

○ 행 사 명: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 시 간: 2018년 7월 3일 ~ 9월 21일 (12주)

○ 장 소: 북대 인큐베이터 및 KIC중국

○ 주최기관: 과기정통부

○ 주관기관: 북대 인큐베이터, KIC중국

○ 참가기업: 10개 기업 (사전 심사 통해 선정)

■ 일정

주	시작일	활동	비고
1	7.3(화)	1.오리엔테이션 2.입주식 3.중국 진출 CEO과정 4.개별 멘토링(1)	
2	7.9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1)(월)	
3	7.16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2)(월) 2.미니 IR(11)	
4	7.23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3)(월)	
5	7.30	1.BP 발표능력 향상 교육 2.개별 멘토링(2)	
6	8.6	1.미니IR(12)	
7	8.13	1.중국 스타트업 방문(2)	
8	8.20	1.개별 멘토링(3)	
9	8.27	1.미니IR(13)	
10	9.3	1.중국 창업 공간 방문	
11	9.10	1.기업 마케팅 보고서 평가회 2.창계미래 한국지역 대회(9.13) 및 졸업식	
12	9.17	1.스자좡 IDG-EXPO (9.20-22) 부스/데모데이	

■ 인큐베이션 기업 리스트

NO.	회사명	기술분야	제품/서비스이름	추천기관	비고
1	버즈폴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자궁경부암 인공지능 원격판독시스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	CIRCULUS	소프트웨어	소셜 로봇 및 클라우드 서비스	KT	
3	브렉스랩	AR	블록체인 기반 AR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	
4	토크나우	교육	블록체인 기반 화상회의 UC&C 서비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5	더센	제조	2차 전지 테스트 시스템 제조/개발	K-ICT창업멘토링센터	
6	자인케미칼	제조	연구개발업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7	에스오에스랩	제조	제품 판매	한국엔젤투자협회	
8	쿠뉴드림팩토리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전자스탬프,프랜차이즈 등	개인	
9	엘비스코리아	헬스케어	의료기기신발 개발 및 유통	개인	중국 기진출

■ 엑셀러레이션 기업 리스트

NO.	회사명	기술분야	제품/서비스이름	추천기관	비고
1	노르마	IT	무선, IoT 네트워크 보안 점검 및 컨설팅	개인	
2	코어무브먼트	제조	EMS트레이닝 머신	개인	
3	울랄라랩	IoT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IoT 및 Data 기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개인	
4	IROC	교육	로봇 올림피아드 교육	개인	중국 기진출

첨부1: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중국진출 CEO 과정 계획(안)

(18.6.6 KIC중국)

○ 교육목적

- 중국진출 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지식 제공
- 중국 기 진출 기업 및 중국 스타트업 성공사례 교류

■ 교육일정

날짜	시간	강의제목	강사	비고
7.3(화)	14:00-16:00	오리엔테이션 (일정, 사무실 배정, 인턴)	KIC중국	
	16:00-18:00	중국 창업 기회	고영화 센터장 KIC중국	강의
7.4(수)	10:00-12:00	중국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이병철 전무 삼성전자	강의
	14:00-16:00	한국 스타트업 중국에서 성공하기	박순우 상무 LB인베스트먼트	강의
	16:00-18:00	《입주식》 대사관 및 중국VIP 초청	(북대 인큐베이터)	
7.5(목)	10:00-12:00	중국의 신 IT산업 동향	이우근 청화대 교수	강의
	13:00-16:00	《중관촌 및 기업 탐방》 전시관,OFO		
	16:00-18:00	사례: 중국진출경험	이신우 대표 위메이드 중국	강의
7.6(금)	10:00-12:00	중국법률 (법인설립, VIE, ICP, 의료허가, 노동계약)	최용원 변호사 세종법무법인	강의
	14:00-16:00	중국 투자유치 전략		강의
	16:00-18:00	멘토링 AI, 의료, 교육 등 분야	중국멘토 3인	
7.7(토)	09:00-18:00	《리더쉽 교육》 黄花城水长城		

■ **CEO 과정 특별 초청 인원**

순번	기관	이름	직책	비고
1	스마일게이트	이경호	매니저	
2	콘텐츠진흥원	남궁영준	센터장	
3	경기비즈니스센터	박운본	소장	
4	한국기업지원센터	박세동	센터장	